

우리에게 다가온 사랑의 손길

김경미/새 생명을 얻은 김기묵 어머니

작은 아들이 세상에 나온 날. 우리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 기쁨은 잠깐 아이는 심장 — 장이 부어서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아빠는 숨이 넘어갈 듯한 아이를 보고 울음이 터져 나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 밤에 이름도 없는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남겨두고 내게로 왔다. 동맥관 개존증은 두차례의 약물 투여 후 부작용으로 중단됐으나 다행히 수술없이 완쾌되었다.

주치의는 먹는 양이 적어서 퇴원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우겨서 퇴원을 시킨 후 정성껏 키웠다.

나는 아이가 우유를 먹다가 사래가 들려 새파래져도 놀라서 119를 불러 응급실을 가는 엄마였다.

아빠가 책을 보고 지은 이름, 김기묵. 제법 예쁘게 자랐을 무렵 우유를 이유없이 토하고 먹지 않아서 밤을 꼬박 새운 후 서둘러 병원을 찾았을 때 숨이 멎는 진단을 받았다. 생전에 들어본적 없는 산혈증(Acidemia)으로 단백질을 제한해서 먹어야 한다는 「선천성 대사이상」이라고 했다.

특수분유를 구할 수 없는데다 패혈증이 의심되는데 항생제를 투여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서울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기묵이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두개조기유합(뇌는 정상으로 자라나 대천문 소천문이 빨리 닫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첫번째 수술을 7시간 반만에 마쳤다. 특수분유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자주 입원을 해야 했다.

아이는 철분 결핍성 빈혈에 시달렸고 단백질이 모자라 면역이 매우 약했다. 감기만 앓아도 제때 회복되지 않았다. 엉덩이가 질무르고 머리카락이 부서져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으면서 더 끊없는 나라에 빠져들었다. 다른 아이들 보다 세배나 힘들었다는 두번째 조기 유합 수술을 마칠 쯤, 특수분유가 수입이 가능해졌고, 우리 나라에서도 특수분유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제 어떻게 재발할 지 모르는 산증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께 간이식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다.

주치의 선생님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기묵이를 추천하셨다. 막상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수술 비용 때문에 망설여졌다.

가협이 과장님도 아가사랑후원회에서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고 했다.

두개조기유합 세번째 핀 제거 수술을 앞두고 기묵이가 바닥에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

두개골에 골절이 생겼으니 혹시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했다. C.T 촬영을 해 보자고.

C.T 결과 이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아이는 머리에 고인 나쁜 피를 제거한 후 핀제거 수술까지 마쳤다. 그리고 간이식을 위한 준비절차를 밟았다.

기묵이는 MMA환아 중 우리 나라 처음으로 힘들다는 간이식에 성공했다.

그런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 축하 파티를 열어 주었고 가협에서도 비디오에 우리를 담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과 아가사랑후원회를 연결해 주셨고 네번의 수술을 잘 견디게 하셨다.

기묵이는 참으로 마음 따뜻한 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더 많은 아이들이 후원을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아가사랑후원회에 깊은 사랑과 따뜻함에 감사를 드립니다.